

# 휴켄스, 첨단 기능성 도료 출사표

친환경 · 방수도료로 고부가가치화 ... 기존제품과 수직계열화 꾀해

정밀화학 소재 전문기업 휴켄스(대표 이종석)가 전남 여수공장에 첨단 도료연구소를 설립한다.

휴켄스는 상반기 중 첨단 도료연구소에서 친환경 도료를 비롯해 우레탄 방수도료, 내화도료, 기능성 코팅제 등 최첨단의 기능성 도료들을 개발하고 2-3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관련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생산제품인 DNT, MNT, 톨루이딘 등이 도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휴켄스 이종석 대표는 “DNT는 우레탄 방수도료의 원료이고 MNT, 톨루이딘, 질산 등도 도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어 첨단 기능성 도료만 개발·생산한다면 기존의 도료 생산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첨단 도료연구소 설립은 휴켄스가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료 부문에서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휴켄스는 2004년 적극적인 신규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2003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2700억원을 매출 목표로 세우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3>